

흐루시초프의 ‘비밀 연설’:

동기와 배경을 중심으로*

박 상 철**

1.

소련 ‘사회주의 실험’의 기본 방향은 1920년대 말에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후 1953년에 사망할 때까지 최고 또는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했던 스탈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 시대에 소련은 농업집산화,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 문화혁명 등 여러 조치들을 통하여 위대한 성취와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 내었고, 그 결과 소련 시대 내내 존속하게 될 이른바 ‘스탈린 체제’가 형성되었다. 당시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하였고, 그 결과 소련 사회의 모습은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문맹자들의 농업국가에서 국민 다수가 문맹에서 벗어난 도시 중심의 산업국가로 완전히 변모하였다.¹⁾ 그리고 이런 변화는 소련의 많은 사람들, 특히 노동자와 농민 출신의 젊은이들에게는 영웅적인 희생, 교육, 신분 상승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도시의 노동자들과 중간계층들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있다는 확신을 지낸 채, 국민의 모든 힘을 경제 발전에 최대한 동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호응은 산업 및 관료제의 팽창, 대대적인 숙청, 교육 기회의 확대 등과 연결되면서 노동자 및 농민 출신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노동계급 및 농민 출신의 수많은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2-072-AL201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도시인구의 비중은 1926년과 1939년 사이에 전체인구의 18%에서 33%로 증가하였고, 육체노동자, 농민, 사무직노동자의 비율은 1924년에 10.4%, 76.7%, 4.4%였지만 1959년에는 50.2%, 31.7%, 18.1%로 변화하였다. G. Gill(1990), pp. 24, 52.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²⁾ 게다가 1940년대에 소련은 강력한 독일 침략군을 격퇴하면서 파시즘의 몰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에는 동유럽의 막대한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의 주요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스탈린 시대에는 이런 성과들만큼이나 엄청난 범죄행위가 존재했다. 스탈린의 여러 정책들은 1929년에 시작된 강제적인 농업집산화에서부터 내무인민위원부와 정치경찰의 무자비한 테러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수반하였다. 게다가 많은 학살은 불법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탈린 체제하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를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당했으며, 재소 한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오랜 생활 근거지에서 야만적으로 추방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적인 감옥이나 강제 노동수용소, 특별거주지역 등에서 오랫동안 비인간적인 삶을 경험해야 했다.³⁾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테러가 급격한 산업화와

-
- 2) 고등학교 학생수는 1926-7년의 1,834,260명에서 1938-9년의 12,088,772명으로 증가하였고, 고등교육기관 학생수는 1927-8년과 1932-3년 사이에 159,800명에서 469,800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 노동계급출신의 비중은 25.8%에서 50.3%로 증가하였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승진은 매우 급속하여 이미 1941년에는 1928-32년 졸업생의 89%와, 1933-7년 졸업생의 72%가 국가 및 당의 지도적인 간부로 성장하였다. G. Gill(1990), p. 25.
- 3) 스탈린 시대의 희생자 규모는 관련 자료의 불완전성 및 신뢰성 문제, 희생자의 개념 정의 문제 등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서로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K. E. Smith(1996, p.8)에 따르면, 1990년에 KGB 관계자들은 1930년에서 1953년 사이에 부당한 재판과 처형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를 786,098명으로 제시했고, 2년 후에 보안기관 관계자는 1,800만 명이 탄압받았고 그 중 700만 명이 사형 선고받았다고 언급했으며, 러시아 학자들은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1934년의 510,307명에서 1953년의 2,468,524명으로 증가했다고 계산하고 있다. 소련의 망명 지식인인 A. Antonov-Ovseyenko(1980, pp.210-213)는 1938년에 감옥 및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1,600만 명이었으며, 1935-1940년에만 거의 1,900만 명이 체포되었고, 농업집산화 및 그에 따른 기근으로는 2,200만 명이, 그리고 1935-41년의 테러로 1,9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학자인 R. Conquest(1990, pp.485-486)에 따르면, 스탈린 시대에 탄압받은 사람의 수는 4,000만 명 정도였고, 그 중 사망자는 2,000만 명이 넘었으며, 1938년말에 감옥 및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900만 정도였다. A. Nove(1993, pp. 268, 272)는 이런 숫자가

농업집산화, '대조국전쟁' 등 스탈린의 이름으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과, 그리고 그가 누렸던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대비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런 대규모 폭력은 모든 사회계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국민 전체가 항상 공포 속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스탈린과 그의 측근들이 특정한 사회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니면 당내의 권력투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⁴⁾

스탈린 시대의 이런 양면성은 스탈린 사후에 그에 대한, 그리고 그 시대 및 체제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가져왔다. "스탈린주의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을 서로 대립하는 진영으로 갈라놓는 정치적 바리케이드가 되었다."⁵⁾ 스탈린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도끼질을 할 때에는 나무 파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러시아 속담처럼,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스탈린과 그의 여러 정책들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희생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스탈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강제적인 농업집산화 정책이 이익보다는 더 많은 해악을 가져왔고, 대규모 탄압은 범죄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소련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스탈린의 정책과는 다른 방식의 산업화 정책이 가능했을 것이며 만약 스탈린의 엄청난 범죄가 없었다면 소련의 위신은 국제 사회에서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탈린 문제는 '소련 사회주의 실험'의 기본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격렬한 논쟁과 의견 대립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점은 1980년대에 많은 소련 사람들이 그의 사망일인 3월 5일에 한편에서는 "조국을 강력하게 만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기억하기 위해, 다른 한편은 "우리 역사에 존재했던 최대의 범죄자"의 사망을 축하하기 위해 건배를 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⁶⁾ 그리고 스탈린에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1930년대에 1,000-1,100만 명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1950년 무렵 약 550만 명 정도가 감옥 및 수용소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면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A. N. Yakovlev(2002, p. 234)는 소련 시대에 정치적 이유로 살해되었거나 감옥 및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를 2,000-2,500만 명 정도로, 그리고 1923-1953년 사이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정치범과 형사범을 모두 포함하여 4,10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4) A. Пыжиков(2002), с. 216.

5) A. Antonov-Ovseyenko(1980), p. 319.

6) S. F. Cohen(1985), pp. 93-96.

대한 이런 상반된 평가는 소련이 해체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⁷⁾

그런데 스탈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이렇게 양분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와 마지막 날인 1956년 2월 25일에 행해진 흐루시초프의 “개인숭배와 그 결과들에 관한” 이른바 ‘비밀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공산당 정통주의자들은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을 1991년 8월 소련공산당의 붕괴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공산당 개혁자들은 그것을 당 개혁과 사회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이자 첫 페레스트로이카로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당 개혁과 사회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였던 “1950년대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당 지도부에 있던 보수 세력들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흐루시초프의 연설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주의적” 모순을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공산당 지도층은 사회 개혁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스탈린 체제의 극단적인 형태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며, 이 때 그들은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상반된 원칙을 결합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⁸⁾ 이렇게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지만, 그 연설이 스탈린주의의 역사에서, 나아가 소련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사실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스탈린의 후계자들이 자신들의 출세 기반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스탈린 체제’를 청산하려고 시도했던 ‘위로부터의 청산’이자 ‘체제 내의 청산’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태생적으로 커다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지만, 역으로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자가 스탈린의 유산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등

7) 예컨대 대중용 역사잡지인 『조국』의 2003년 2월호에 실린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 공산당 의장인 주가노프(Г. Зуганов)는 스탈린을 “우리 국가에 전례 없는 도약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침략적인 제국주의적 의도를 억제함으로써 전 세계의 확실하고 역동적인 발전을 보장했던” “소련체제의 창출자이자 초강대국의 건설자”로 평가하는 반면에, 러시아 ‘국가두마(Госдума)’ 부의장인 이리나 하카마다(Ирина Хакамада)는 스탈린을 “도덕이 비난조차 하지 않고 그냥 등을 돌려버린” “악의 화신”으로 평가하면서 “스탈린주의는 파시즘보다도 무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Родина*, 2003, no. 2, сс. 32-33.

8) В. П. Наумов(1996), с.148.

스탈린주의 청산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호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루시초프가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밀연설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호루시초프 연설의 동기와 배경 문제는 그 연설의 의미와 한계와는 달리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한두 측면에 대해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호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 연설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소련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1953년 3월 5일 “공산당과 소련 인민의 현명한 지도자이자 교사이며 레닌의 동료이자 뛰어난 제자인” 스탈린이 74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이는 1920년대 말에 형성되어 20년 이상 소련 사회를 지배해온 ‘스탈린주의’의 중요한 중심축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⁹⁾ 스탈린은 레닌이 죽은 후 처음에는 국가권력과 정치노선을 둘러싸고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 다음에는 자신의 전제 권력을 확립, 유지하기 위해 언론 통제와 선전선동, 그리고 대규모 테러를 사용하였다. 그는 소련 국민과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서 공산당과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공산당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숙청하였고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하였다.¹⁰⁾ 스탈린은 “인민의 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 개념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스탈린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단지 적대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중상모략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¹¹⁾ 게다가 광범위한 테러는 보통 법률의 구애를 받지 않은 채¹²⁾ 이루어졌고 그 중

9) R. C. Tucker(1971), pp. 183-184.

10) 예컨대 R. G. Suny(1997), pp. 26-52를 참조하라.

11) A. H. Яковлев(1991), сс. 24-25.

심에는 거의 언제나 스탈린이 존재했다. 흐루시초프에 따르면, 스탈린은 “지도부 내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냥 자신이 재판을 했고 사람들을 제거했다.”¹³⁾ 이렇듯 스탈린은 당과 국가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국가의 모든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일단 스탈린이 제안하면 문제란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하느님이 한 제안이었고 하느님이 준 모든 것은 토론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었다.¹⁴⁾ 요컨대 스탈린은 당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누렸으며 스탈린 체제의 작동은 그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탈린의 사망은 스탈린 체제의 중심축이 무너졌음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런데 소련 사회 내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즉 ‘대조국전쟁’과 그 직후부터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2차 대전, 이른바 ‘대조국전쟁’은 혁명 이후 사실상 고립 상태에 가까웠던 소련이 막대한 인적, 물질 손실을 감내하면서 독일 침략군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을 장악하는 등 전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였다. 이런 점에서 대조국전쟁의 경험은 그 승리가 스탈린의 위대한 업적으로 간주됨에 따라 스탈린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스탈린 체제를 이완시키는, 나아가 많은 소련 시민들에게 당시 소련 현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오랫동안 스탈린 체제에 억눌려있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는 전쟁초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진정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고,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자유”를 발견했다.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 전후방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 발생적인 탈스탈린화”의 시기를 경험했던 것이다.¹⁵⁾ 뒤이어 소련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12) 이는 흐루시초프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사판도, 검사도, 법정도, 즉 그 무엇도 없었으며 그냥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Н. С. Хрушев(1997), c. 271.

13) 같은 책, c. 187.

14) Н. С. Хрушев(1999), т. 2, с. 99.

15)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라자레프(Lazar Lazarev)는 자신이 학교에서 “전능한 최고 지도자”라고 배웠던 스탈린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1941-1942년의 군사적 패배였다고 회고한다. N. Tumarkin(1994), pp. 64-66; 리처드 오버리(2003),

고 독일군을 격퇴하게 되자 수백만의 소련 병사들은 “파시스트 세력들”을 추격하여 국경선을 넘어 동유럽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그에 따라 엄청난 수의 소련 시민들이 처음으로 유럽에 머물면서 다른 나라의 현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으며 그것을 당국의 이데올로기적 간섭 없이 자기나라의 실제 현실과 비교할 수 있었다.¹⁶⁾ 또한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파시스트 독일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소련 시민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¹⁷⁾ 따라서 당시 패전국인 독일의 경제상황이 승전국인 소련보다 더 나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경험들은 아마도 소련 현실을 보는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전후에 소련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스탈린주의를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요소였던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은 약화되었다. 소련은 전쟁 직후인 1946년초에 수교국이 전쟁 전의 25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났다는¹⁸⁾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났다. 또한 소련은 군사적으로 점령했던 동유럽지역에 여러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워 통제함으로써 자본주의국가들과 충돌할 때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¹⁹⁾ 나아가 소련은 전후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국제문제를 둘러싸고 다른 강대국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강대국의 국가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따라서 스탈린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깊이 확신했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소련정부의 이런 모순된 입장은 스탈린 사후에도 계속되었다.²⁰⁾ 이렇듯 소련은 더 이상 “자본주의 열강들에게 포위당한 고립된 사

271, 437쪽.

16) A. Пыжиков(2002), c. 18.

17) 소련은 전쟁기간에 무기 대여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인쇄물, 미국 관광객까지도 받아들였다. 또한 전쟁기간에 소련 관리와 공학 기술자 15,000명이 미국 공장과 군사 시설을 방문하였다. W. L. Hixson(1997), pp. 6-7; 리처드 오버리(2003), 266-271쪽.

18) A. Пыжиков(2002), c. 15.

19) 소련이 동유럽 지역을 통제하려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자국 경제를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G. Gill(1990), pp. 49-50.

20) A. Пыжиков(2002), cc. 15-17; Ю. В. Аксютин, О. В. Волобуев(1991), cc. 66-101.

회주의의 요새”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자국 국민들에게 이전과 같은 희생과 경제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소련 시민들은 힘겨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소련이 국제사회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자 이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제는 더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²¹⁾ 하지만 대조국전쟁은 소련측에 약 2,700만의 인명 손실과 함께 엄청난 물질 피해를 남겼는데, 특히 독일군이 점령했던 유럽러시아 서부지역,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야 등의 지역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폐허 속의 토굴에서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허덕이면서 신속한 경제재건을 위한 자발적인 또는 강제적인 추가노동을 감당하여야 했다. 그런데 1945-50년의 재건 기간에 국가 재원의 대부분이 중공업 분야에 투자되었고 경공업과 식품산업, 농업 등의 분야는 소외당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열악한 생활조건은 빠르게 개선될 수 없었다.²²⁾ 그 결과 대중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현실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당 집회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많은 공장과 제작소들이 건설되는 것을 직접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좋다. 하지만 늙은이인 우리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헌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 250그램의 빵밖에 없다”고 힘든 현실을 비판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당의 선전원에게 “우리나라는 언제 빵, 지방, 설탕, 그리고 다른 식료품들이 많아지는가?”, “언제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줄 것인가?” 등을 물었다.²³⁾ 그리고 이런 상황은 내전 직후에 신경제정책이 도입되었던 소련의 역사적 경험과 결합하여 재건정책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의 노선 투쟁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보즈네센스키(Н. А. Вознесенский)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은 국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재 생산을 확대할 것과 식량 및 대중 소비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

21) 터키에 따르면, 1945년에 러시아 사람들은 결코 스탈린 체제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런 감정은 전승기념일에 군 장교가 했던, “이제는 [사람답게] 살 때이다.(Now it is time to live)”는 말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R. C. Tucker(1971), pp. 186-187.

22)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전후 복구 기간의 소련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알렉 노브(1998)의 10장과 11장을 참조하라. 1945-50년의 공업투자 중 87.9%가 생산재 부문에, 12.8%가 경공업과 식품산업에 들어갔다. 같은 책, 328쪽.

23) А. Пыжиков(2002), с. 27.

던 것이다.²⁴⁾

하지만 스탈린은 이런 경향들에 맞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추스르면서 기존 체제를 재확립, 강화하려 시도하였고 이런 시도는 1950년대초가 되면서 새로운 대규모 테러를 예고하는 징후들로 표현되었다. 예컨대 1952년 10월초에 스탈린은 프라브다 지에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에 관한 긴 논문을 발표하여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정리하면서 중앙집중식 경제운영, 중공업 우선정책,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통제 등 기존 경제노선을 정당화하였다.²⁵⁾ 뒤이어 10월 5일부터 열린 19차 전당대회에서 몰로토프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호전적인 제국주의 진영을 언급하면서 소련 국민들에게 경계의 필요성을 “한 순간이라도 잊지 말 것”을 촉구했고, 말렌코프는 당 내에 “자기만족”, “경계심의 둔화”, “당 및 국가 기밀의 누설” 등이 확산되어 있음을 비난한 후 “비판과 자기비판”, “당 규율의 엄격한 준수”, “목인과 부주의에 대한 정력적인 투쟁”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²⁶⁾ 전당대회 직후에는, 다가올 새로운 테러 이후를 대비하여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에 새로운 인물들을 다수 선출하였고²⁷⁾ 프라브다 지 등 주요 언론들은 정치의식과 당 규율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3년 1월에 프라브다 지는 “소련의 지도적 간부들을 제거하라는” 미국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던 크레믈린 의사들의 “테러” 집단이 발각되었다는 이른바 “크레믈린 의사들의 음모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런 위험한 음모를 국가보안기관이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비난하는 논설을 실었다. 이렇게 하여 1953년 2월경에는 새로운 테러가 다가오고 있음이 확실해졌고 몰로토프, 미코얀, 베리야 등 스탈린의 여러 측근들은 새로운 테러가 자신들을 휩쓸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²⁸⁾ 물론 준비되던 대규모 테러는 스탈린의 ‘갑작스런’ 사망

24) 이런 노선은 한때 스탈린의 ‘축복’을 받아 소련 정부의 여러 조치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A. Пыжиков(2002), pp. 18-21.

25) W. Leonhard(1962), pp. 36-39; L. Gruliov(1953), pp. 1-20.

26) L. Gruliov(1953), pp. 97, 118-121.

27) 19차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중앙위원회 간부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원래 정치국은 정위원 9명과 후보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던 데 반하여, 새 간부회의 구성은 새로운 인물들을 포함하여 정위원 25명과 후보위원 11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중앙위원회 서기국은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 조직들의 구성원 명단은 L. Gruliov(1953), p. 242를 보라.

28) L. Gruliov(1953), pp. 243-246; W. Leonhard(1962), pp. 43-49.

으로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소련 사회는, 특히 당과 국가의 고위인사들은 1930년대 테러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스탈린주의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사실 스탈린의 독재와 테러가 국가와 공산당에 가져다준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우선 스탈린 시대, 특히 1930년대의 테러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공산당 당원과 국가 관리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었다. 예컨대, 흐루시초프의 연설문에 따르면, “17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139명 중 98명, 즉 70%가 (주로 1937-38년에) 체포되어 총살당했으며.....표결권과 심의권을 지닌 [17차] 전당대회 대의원 1966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108명이 반혁명 범죄로 고발되어 체포되었다.”²⁹⁾ 이런 상황은 하위 기관들이나 지방의 경우에도 비슷하였다. 모스크바 시(市) 당위원회와 모스크바 주(州) 당위원회에서 1935-37년에 근무했던 서기 38명 중 35명, 시 또는 구 당위원회 서기 146명 중 136명, 그리고 수많은 국가기관, 노동조합, 경제계, 과학 및 문화계의 지도적인 인사들이 체포되었다.³⁰⁾ 이러한 기간요원들의 대규모 희생 때문에 국가 및 당의 주요 기관들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요원들이 부족하기 일쑤였고, 그에 따라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국가와 당의 여러 기관들은 ‘경계심 촉구’ 캠페인 등에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 및 정책 추진에서 내무부 또는 비밀경찰 등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었다.³¹⁾ 게다가 대규모 탄압은 국가 및 당의 여러 기관의 도덕적 권위에 타격을 주었고 각 기관 내에 상호 불신감을 확산시켰으며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가들과 출세주의자들이 활보하도록” 만들었다.³²⁾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당의 기간요원들이 느꼈던 신분의 불안정이었다. 스탈린 시대에 그 누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계속 살게 될지, 아니면 제거되거나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알 수 없었고,³³⁾ 따라서 기간요원들은 “일하기를 두려워할”³⁴⁾ 정도로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고위 관료들

29) A. H. Яковлев(1991), с. 30. 1937-38년에 내무부는 공산당, 소비에트, 콤포소물, 군, 경제 분야의 일꾼 수천명의 이름이 적힌 383개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그 목록들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 체포와 처형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같은 책, 39쪽.

30) В. П. Наумов(1997), сс. 22-23.

31) Н. С. Хрушев(1997), с. 252.

32) A. H. Яковлев(1991), с. 39.

33) Н. С. Хрушев(1997), сс. 254-255.

34) 같은 책, с. 66.

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스탈린의 최측근들도 “일시적인 인간들”로서 스탈린이 신임하는 동안에만 살아서 일할 수 있었다.³⁵⁾ 따라서 이미 상당한 규모로 팽창되었던 공산당, 행정부, 군부, 경제계 등의 관료계층은 신분 안전과 업무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이 죽자 스탈린의 측근들은 자신들끼리 권력을 나누기로 합의한 후³⁶⁾ “집단 지도 체제”와 “사회주의적 합법성”을 천명하였다. 물론 그들은 분파주의적 행위를 금지한 당의 결의안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단합을 표방하였지만 스탈린이 죽자마자 곧바로 최고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전개하였고, 그들의 권력 투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와 결부되면서 치열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다.³⁷⁾ 하지만 이들은 다른 누군가가 당과 국가 기구 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탄압을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게다가 말렌코프와 베리야 등 일부 지도자들은 억압적인 스탈린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농업과 소비재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소련 체제의 ‘경직된’ 측면을 완화하려고 생각했다. 따라서 크레믈린의 새 지도자들은 스탈린주의를 암묵적으로 비판하면서 ‘집단지도체제’와 ‘사회주의적 준법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곧바로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브다 지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1953년 4월 6일 프라브다 지는 “소련의 사회주의적 법률은 불가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그 사설에 따르면, “소련 정부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35) Н. С. Хрушев(1999), т. 2, с. 77.

36)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 소련 국무회의, 소련 최고회의 의장단 등의 1953년 3월 5일 연합회의, 3월 14일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와 소련 최고회의 4차 회의 등을 통하여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말렌코프, 베리야, 몰로토프, 보로실로프, 호루시초프 등을 포함하는 10명의 위원과 4명의 후보위원으로 축소되었다. 그와 동시에 말렌코프는 소련 국무회의 의장에, 베리야는 내무장관에, 몰로토프는 외무장관에, 보로실로프는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 의장에 임명되었고, 호루시초프는 중앙위원회 서기로서 서기국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L. Gruliov(1953), pp. 247-248, 255-258.

37) 새로운 지도부 내의 입장 차이는 스탈린의 장례식이 거행된 3월 9일에 이미 드러났다. 그날 말렌코프, 베리야, 몰로토프 등 세 사람이 연설했는데, 말렌코프는 화해적인 외교정책을 시사하고 소비재 산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던 반면에, 몰로토프는 국내외의 적들에 대한 경계심과 투쟁을 강조하였다. L. Gruliov(1953), pp. 249-253.

주의 깊게 그런 권리들을 보호하며...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 누구도 사회주의적 법률을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 모든 집단농장 농민, 모든 소련 지식인은 자신의 시민적 권리가 소련의 사회주의적 법률로 제대로 보호되고 있음을 알고 평화롭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³⁸⁾ 뒤이어 4월 16일에 실린 "집단성은 당 지도의 최고 원칙"이라는 제목의 논설은 이 원칙의 침범을 "당 조직들과 당원들의 창의성과 독자성을 구속하는 관료주의의 발현"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최고 원칙의 매우 엄격한 준수가 올바른 지도의 증거이며 당 작업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³⁹⁾

이렇듯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스탈린의 일인 독재와 자의적인 테러정책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쉽게 합의하였다. 하지만 스탈린에 대한 평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수 없었다. 우선 새로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스탈린의 범죄들을 비판하고 공개했을 때 그 부담이 곧바로 스탈린의 최측근이었던 자신들에게 돌아올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들은 스탈린 아래에서 출세했고 그의 선택을 받았던 '완벽한' 스탈린주의자였기 때문에 스탈린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스탈린 문제에 대해 어색한 침묵을 지키면서 스탈린 체제의 병폐와 그 유산을 조금씩 정리하는 이른바 "조용한 스탈린주의 청산"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다.⁴⁰⁾ 예컨대 1953년 3월 27일에는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업무 관련 범죄, 경제 범죄, 몇몇 군 관련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 18세 이하의 미성년, 55세 이상의 남성, 50세 이상의 여성, 불치병 환자 등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법이 내무장관 베리야의 주도로 채택되었다.⁴¹⁾ 또한 4월 4일의 프라브다 지에는 크레믈린 의사들이 석방과 함께 복권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부 요원들은 크레믈린 의사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 법률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수사방

38) L. Gruliow(1953), p. 260.

39) Ю. В. Аксютин, О. В. Волобуев(1991), с. 46.

40) W. Leonhard(1962)는 1953년 3월부터 1956년 2월까지의 시기를 "조용한 스탈린주의 청산"으로 특징지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pp. 62-119를 참조하라.

41) 이 법에 의해 1953년 8월 10일까지 1,032,000명이 석방되었다. L. Gruliow(1953), pp. 258-259; В. Наумов, Ю. Сигачев(1999), сс. 19-21, 398.

법"을 사용하여 자백을 받아냈다고 비난받았고 이 사건 관련자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⁴²⁾ 뒤이어 내무장관 베리야는 그 때까지 관행이었던 고문 등의 수사방법을 금지하면서 무고한 시민을 체포, 고문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 관련자와 함께 지휘책임자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내무부 요원들에게 경고하였다.⁴³⁾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조용한 스탈린주의 청산" 움직임은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 가혹한 사법체제의 완화 등의 문제뿐만⁴⁴⁾ 아니라, 문화,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었고, 크고 작은 기복을 겪으면서도 1956년 2월의 공산당 20차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되었다.

3.

소련 공산당 20차 전당대회는 1956년 2월 14일에서 25일까지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에서 열렸는데, 여기에는 6,795,896명의 공산당원과 419,609명의 공산당 후보당원을 대표하는, 표결권을 지닌 대의원 1,349명과 심의권을 지닌 대의원 81명, 그리고 55개국의 외국 공산당 대표단 등이 참석하였다. 이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스탈린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방향의 설정이었는데, 이는 대회장에 스탈린의 동상이나 사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⁴⁵⁾ 이 전당대회의 연단에서 여러 당 지도자들은 직접 스탈린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집단적 지도체제와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코얀은 스탈린의 대표적인 저작인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와 "소련공산당사, 단기과정"에 여러 잘못된 사실과 이론적 오류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들에게 그런 분야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올바른 교과서를 저술하도록 요청하였다.⁴⁶⁾ 하지만 20차 전당대회를 소련 역사의 중

42) В. Наумов, Ю. Сигачев(1999), сс.23-25, 398.

43) В. Наумов, Ю. Сигачев(1999), сс.28-29.

44) 이와 관련해서는 사료모음집인 А. Артизов и др.(2000)을 참조하라.

45) Ю. В. Аксютин, О. В. Волобуев(1991), с.102; W. Leonhard(1962), p.120. 표결권을 지닌 대의원은 원래 1,355명이 선출되었지만 6명은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46) 이에 대해서는 L. Gruliov(1957), pp.80-89, 특히 pp.87-88을 참조하라.

요한 분기점으로 만든 사건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월 25일 오전의 ‘비공개 회의’에서 행해진 “개인숭배와 그 결과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보고연설이었다. 흐루시초프의 이른바 ‘비밀연설’은 구체적인 문서, 숫자, 희생자들의 이름까지 제시하면서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관련된 여러 범죄행위들을 폭로함으로써 참석한 대의원들을 당황과 충격 속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소련 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스탈린 문제는 격렬한 토론과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⁴⁷⁾ 그 결과 ‘비밀연설’은 스탈린주의의 역사에서, 나아가 소련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비밀연설’의 준비과정은 주로 흐루시초프 시대에 소련 공산당이 유포했던 선전 내용과 나중에 발간된 흐루시초프의 회고록에 근거하여 설명되어왔다. 그 설명에 따르면, 1955년 가을에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스탈린 시대에 행해진 당 기간요원에 대한 탄압이 대규모였다는 점, 그리고 처형의 근거는 대부분 조작된 것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사후 처음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에서 다가올 전당대회의 대의원들에게 스탈린의 범죄행위들을 알리자고 제안했다. 흐루시초프의 이런 제안에 대해 몰로토프, 말렌코프, 카가노비치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간부회의 나머지 위원들은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당대회에서 발표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나갈 무렵에야, 즉 2월 24일에야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간부회의 요구에 따라 흐루시초프는 서둘러 준비한 연설문으로 자신이 직접 전당대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연설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흐루시초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었는데, 특히 흐루시초프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마치 자기 혼자서 비밀연설을 20차 전당대회 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

47) 에렌부르그(И. Эренбург)의 회고에 따르면, “2월 25일 비공개회의에서 흐루시초프가 보고할 때, 몇몇 대의원들은 실신했다.... 그 보고문을 읽으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 이것을 복권된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 제1 서기가 전당대회에서 말했던 말인가. 1956년 2월 25일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날이 되었다.... 어디에서나 스탈린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집에서, 작업장에서, 식당에서, 지하철에서.” С. В. Кулешов и др.(1991), с. 452, 454.

장하여 관찰시켰던 것처럼 서술했다.⁴⁸⁾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일부 비공개 사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몇몇 주요 인사들의 회고록이 발표됨에 따라 이런 설명을 뒤엎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⁴⁹⁾ 비밀연설의 준비과정과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살펴본다면, 우선 다른 사람이, 예컨대 미코얀이 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범죄에 대해 알리자고 호루시초프에게 제안했고 호루시초프는 그 제안을 1955년 가을에 중앙위원회 간부회에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후 스탈린 문제를 몇 차례 논의했던 간부회는 1955년 12월 31일의 회의에서 1930년대 후반의 정치적 탄압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⁵⁰⁾ 중앙위원회 서기인 포스펠로프(П. Н. Поспелов)를 수반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1956년 2월 1일 회의에서는 이미 밝혀진 스탈린의 범죄행위를 당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월 9일의 회의에서는 포스펠로프 위원회의 충격적인 보고가 이루어진 후 간부회 위원들이 두 그룹으로 대립되었다. 우선 몰로토프, 보로실로프, 카가노비치 등 원로위원들은 보고 자체에 반대했던 반면에 다수의 나머지 위원들은 전당대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따라서 이날 간부회는 포스펠로프 위원회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그 보고 내용을 전당대회에 알리기 위해 그것을 연설문 형태로 바꾸도록 포스펠로프에게 지시했다. 전당대회 전날인 2월 13일의 회의에서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전당대회 비공개회의에서 개인승배에 관해 보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밝히고 “호루시초프를 보고자로 승인하기로”⁵¹⁾ 결정하였다. 2월 19일에 호루시초프는 포스펠로프 등이 마련한 연설문 초안과 다른 몇 가지 자료들을 참조하여 자신의 연설문을 구술하였고, 그 연설문은 간부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2월 23일에 최종본이 마련되었다. 요컨대, 1955년 가을부터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스탈린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를 계속했고, 호루시초프의 입장에 반대하는 세력은 소수파에 불과했으며 호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호루

48) В. П. Наумов(1996б), сс.154-155; Н. С. Хрущев(1997), сс.286-295. 예컨대 Ю. В. Аксютин, О. В. Волобуев(1991), сс. 186-200은 이런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49)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В. П. Наумов(1996б), сс. 155-165와 Ю. В. Аксютин(1998), сс. 108-113을 보라.

50) А. А. Фурсенко(2003), с. 79.

51) К. Аймермахер(2002), сс. 239-240.

시초프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중앙위원회 간부회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제들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비밀연설의 배경과 동기와 관련된 몇몇 문제들, 예컨대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범죄에 대해 언제 알았는지, 왜 흐루시초프는 그 문제를 1955년 가을에야 간부회에서 제기했는지, 그리고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들은 흐루시초프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흐루시초프는 어떻게 이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범죄 행위들, 즉 비밀경찰에 의한 반혁명 및 반소(反蘇) 사건 조작, 피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 스탈린의 명확한 또는 암묵적인 지시 등등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1955년 가을보다는 훨씬 앞선 시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1953년까지 여러 측면에서 “골수 스탈린주의자”였던⁵²⁾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시대에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의 당 조직 책임자로서 대규모 숙청을 주도하는 등 직접 정치적 테러에 관여했으며,⁵³⁾ 또한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의 위협을 경험했고 당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베리야로부터 정치적 탄압과 관련된 자랑과 불평을 여러 차례 들었다.⁵⁴⁾ 이런 개인적 경험과 결합하여 이른바 ‘베리야 사건’은 흐루시초프가 정치적 탄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⁵⁵⁾ 스탈린의 사망 직후 가장 위협적인 권력기관을 장악했던 내무부 장관 베리야는 ‘의사들의 음모’ 사건 관련자들을 석방, 복권하고 권력기관의 불법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자신의 권력 강화와 함께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실시했다. 베리야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스탈린이 직접 모든 징벌 행위들을 통제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스탈린의 의지를 실행했을” 뿐이었다는 점을

52) T. H. Rigby(1984), p.53.

53) В. П. Наумов(1997), сс.22-24.

54) 예컨대 Н. С. Хрушев(1997), сс.64-67, 187을 보라. 베리야는 누군가가 굳건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보게, 그 사람을 하루 저녁만 나에게 보내게, 그러면 그는 내게 자신이 영국 왕임을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Н. С. Хрушев(1997), с.187.

55) ‘베리야 사건’에 대해서는 В. П. Наумов(1998), сс.17-39를 참조하라. 저자는 베리야의 체포, 재판, 처형이 “20차 전당대회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고 평가한다. с.39.

보여줌으로써, 즉 “대규모 정치적 탄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스탈린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백정, 자유의 억압자, 고문자, 잔인한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했다.⁵⁶⁾ 하지만 베리야의 이런 일방적인 행동은 스탈린의 측근으로서 그의 범죄행위에 연루되었던 중앙위원회 간부회 동료들의 두려움을 낳았고 그것은 베리야의 독주에 대한 질시와 결합되어 ‘베리야에 대한 음모’로 발전하였다. 결국 베리야는 1953년 6월 26일에 중앙위원회 간부회 동료들에게 체포되었고 그에 대한 조사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적어도 호루시초프와 그의 간부회 동료들에게는 스탈린 시대에 자행된 정치적 탄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⁵⁷⁾ 특히 호루시초프는 그 이후로도 개인적인 경로, 예컨대 베리야의 비밀 서류들을 검토했던 그의 측근이자 국가안전위원회(КГБ) 책임자인 세로프(И. А. Серов), 베리야 재판 직후 복권되어 수용소 관리 부처의 요직에 있으면서 스탈린의 범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호루시초프에게 직접 보고했던 스네고프(А. В. Снегов), 또는 그의 측근으로서 1953년 8월부터 소련 검찰총장으로 근무했던 루덴코(Р. А. Руденко)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955년 가을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루시초프와 간부회 위원들은 베리야 사건 이후 스탈린을 직접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탈린을 계속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스탈린 시대의 여러 관행과 정책들을 폐지하고 비판하는 ‘조용한 스탈린주의 청산’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호루시초프 등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953년 7월 9일자 결의문에 나타난 것처럼, 정치적 탄압뿐만 아니라 스탈린 말기의 여러 실책들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국제 제국주의의 첩자”로서 스탈린을 “교활하게 속이면서 출세를 위해 여러 술책으로 스탈린의 신임을 얻었던” 베리야와 그의 영향 아래 “내무부에 들어온 여러 출세주의자, 모험주의자, 당의 적들”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새 지도부는 “레닌

56) Vladimir Naumov(2000), pp. 96-98.

57) 베리야 재판은 1953년 12월 18-23일에 진행되었고, 베리야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곧바로 처형되었다. 베리야의 처형 후 그에 대한 기소장이 지방의 당 조직들에게 유포되었다. В. П. Наумов(1996b), с. 150.

58) 예컨대 В. П. Наумов(1997), сс.30-31; Roy A. & Zhores A. Medvedevs(1978), p. 11; А. Пыжиков(2002), сс. 220-221; Н. С. Хрушев(1997), с. 287 등을 참조하라.

의 제자이자 계승자인 위대한 스탈린”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도의 집단성”이 “당 지도의 최고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대중들의 “물질적 복지 개선”을 강조하며 “농업의 급격한 발전”을 “미룰 수 없는 경제적 과제”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⁹⁾ 그리고 흐루시초프를 포함한 새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1954년 봄 베리야의 측근인 아바쿠모프(В. С. Абакумов)의 재판에서도 그리고 1955년 5월의 유고 방문 때에도 반복되었다.⁶⁰⁾

하지만 새 지도부의 이런 태도가 계속될 수는 없었다. 사실 스탈린주의의 ‘조용한’ 청산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새로운 지도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소련 공산당은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모든 역사과정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해석에 입각하여 소련 체제의 역사적 정당성, 나아가 진보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공산당이 스탈린 체제를 재편하면서 모든 잘못을 베리야 등에게 덮어씌운 채, 20년 이상 소련 사회를 지배했던 지도자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도 없이 필요할 때에만 일과성으로 언급하는 짓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스탈린에 대한 평가는 소련 사회에서, 특히 체제 재편을 둘러싼 여러 정치세력들 사이의 투쟁에서 커다란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스탈린에 대한 새 지도부의 애매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옛 체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소련의 새 지도부는 스탈린의 이론 틀에서 벗어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권위를 계속 인정할 경우 반대세력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반박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⁶¹⁾ 예컨대 소련의 새 지도부는 집단지도 체제와 사회주의적 준법성을 강조하면서 지방 당국들에게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을 사면, 복권시키는 작업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사소한 범죄에 대한 지나친 처벌을 완화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의 여러 사법기관은 자기 조직의 명예 실추와 책임 문제 때문에 정치적 탄압 사건들의 재조사를 지연시켰고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피의자 구타, 자백 강요, 증거 조작, 함정 수사 등을 계속하였으며, 지방 법원들은 구두 한 컬래를 훔친 사람에게 17-18년 형을 선고하는 등 스탈린 시대의 판례를 반복하였고 일부 당 관료들과 시민들은 스탈린 시대의 용

59) В. Наумов, Ю. Сигачев(1999), сс. 368, 370-373

60) В. П. Наумов(1998), сс. 37-38; Н. С. Хрущев(1997), сс. 296-297.

61) S. F. Cohen(1985), p. 100; В. П. Наумов(1996а), сс. 13-14; А. Пыжиков(2002), с. 50.

어와 논리를 사용하여 정부 정책을 “자유주의적” 또는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였다.⁶²⁾ 이런 상황에서 호루시초프 등 새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들의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탈린 시대의 논리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국가와 당의 많은 관료들에게 충격을 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련의 새 지도부는 스탈린 시대에 자행된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을 사면, 복권하는 과정에서 스탈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탈린 사망 직후에는 베리야의 주도 아래 100만 명 이상의 형사범들이 석방되었고 ‘의사들의 음모’ 사건 등 스탈린 말기의 조작 사건들이 폭로되면서 관련자들의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옥과 수용소 등에는 여전히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고 새 지도부는 우선 기존 체제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친척과 옛 동료들부터 사면하거나 복권시켰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면복권은 베리야의 체포 및 처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⁶³⁾ 그 결과 1953년에는 약 4,000명 정도의 정치범이 석방되었고, 그 수는 1954-55년에 12,000명까지 증대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복귀로 공산당과 국가기관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⁶⁴⁾ 이런 상황은 수용소에 남아있거나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을 친척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고, 이들은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사면복권해달라는 진정서를 계속 국가 및 공산당의 관계 기관들에 제출했다.⁶⁵⁾

62) 예컨대 А. Пыжиков(2002), сс. 221, 233, 235-245 등을 보라. 저자에 따르면, 20차 전당대회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3) 가장 먼저 복권된 사람은 볼로토프의 부인인 쟈추쥬나(П. С. Жемчужина)였고, 뒤이어 베리야의 옛 동료들, 카가로비치의 친형, 그리고 군 장성들이 사면, 복권되었다. 예컨대 А. Артизов и др.(2000), сс. 15, 18, 24, 38-9, 40 등을 보라. 호루시초프의 연설에 따르면, 1954년부터 20차 전당대회 직전까지 최고법원 군사협의회는 7,679명을 복권시켰는데, 그 중 다수는 사후에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А. Н. Яковлев(1991), с. 39.

64) Roy A. & Zhores A. Medvedevs(1978), pp. 19-20. 저자들에 따르면, 비밀연설 직후인 1956-7년에는 7-8백만 명이 석방되었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고, 5-6백만 명은 사후 복권이 되었다.

65) 정치적 희생자의 친척들은 국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소련 사회에서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힌 채 오랫동안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기 때문에 희생

게다가 소련의 새 지도부는 점차 강제적인 수용소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때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은 일종의 값싼 '노예노동'으로서 소련의 산업화와 전쟁 수행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특히 막대한 경비(警備) 비용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조차 비효율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럽게 되었다. 특히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포로 출신들과 우크라이나 등 서부 지역 민족주의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족별 비밀조직이 결성되는 등 수용소의 분위기는 변하였고 스탈린 사후에 석방을 기대했던 대다수 정치범들은 자신들의 석방이 이뤄지지 않자 분노하였다. 이들의 분노는 여러 수용소에서 비밀 조직을 기반으로 수용소 상황개선, 사면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조직된 파업과 봉기 등으로 표출되었고 당국은 때로는 양보를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탱크와 비행기까지 동원한 폭력을 사용하여 진압하였지만, 수용소의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⁶⁶⁾ 따라서 새 지도부는 수많은 수용소에 갇힌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이 머지않아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돌아온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침묵을 하겠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발설할 것이며, 한때 '인민의 적'으로 비판받았던 사람들이 공개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는 이런 현상이, 나아가 공산당의 공식 이데올로기에 어긋난 이들의 이야기 자체가 소련 사회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5년 4월초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1956년 2월 14일에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⁶⁷⁾ 흐루시초프는 이를 준비하면서 이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 문제를 거론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여기에는 권력 투쟁과 관련한 그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자에게 찍힌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이들 친지들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그들을 외면해야 했던 기억 때문에 커다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Roy A. & Zhores A. Medvedevs (1978), p.14; S. F. Cohen(1985), pp. 97-98. 이런 진정서는 스탈린이 죽기 전부터 국가 및 당의 주요 기관에 쇄도하였다. 예컨대 소련 최고법원은 1953년 3월 이전에 이미 이런 진정서를 매달 3만 통 이상 받았다고 한다. А. Пыжиков(2002), с. 217.

66) 흐루시초프 시기의 수용소 상황에 대해서는 A. Applebaum(2003), pp. 476-526을 참조하라. 주요한 수용소 폭동들에 대해서는 G. Hosking(1993), pp. 326-32 [김영석 옮김(1988), 321-27쪽.]; A. Applebaum(2003), pp. 484-505를 보라.

67) К. Аймермахер(2002), сс. 167-168.

것이다. 사실 스탈린 사망 직후부터 전개된 권력 투쟁에서 “굳건한 의지와 넘치는 재치, 신속하면서도 용의주도한 머리회전 능력”을⁶⁸⁾ 지닌 호루시초프는 점차 부상하여 1955년말에는 “집단지도체제 내의 제1인자”가 되었다. 호루시초프는 이미 1953년 6월말에 모두 두려워하던 강력한 내무장관 베리야를 체포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에 그는 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기구를 중심으로 소비재 중심의 경제정책 등 ‘급진적인’ 체제 개혁을 추진하려던 말렌코프에 맞서기 위해 보수파들과 협력하였으며 1955년 2월에는 결국 말렌코프를 실각시키고 자신과 가까운 불가닌(Н.А. Булганин)을 정부수반에 임명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호루시초프는 베리야를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과 관련하여 비난했고, 말렌코프를 베리야와 가까웠고 레닌그라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들어 비난하는 등 정치적 탄압에 대한 책임 문제를 권력 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베리야-말렌코프 세력을 무너뜨린 후, 호루시초프는 외교 정책 등에서 여전히 스탈린주의적 노선을 고집하는 몰로토프 등 보수파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비판은 1930년대부터 스탈린의 측근이자 소련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었으며 당시 소련공산당 내에서 커다란 권위를 누리고 있던 몰로토프 등 고참 스탈린주의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호루시초프는 1955년 내내 정치범의 사면복권 문제와 함께,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⁶⁹⁾ 1955년 6월 3일에는 불가리아 공산당 및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스탈린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⁷⁰⁾ 그런 반면에 그는 베리야가 스탈린 및 그 측근들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수집해 놓은 가마니 11개 분량의 서류들을 폐기하는 등 그 누구도 스탈린 시대의 범죄와 관련하여 자신을 비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⁷¹⁾ 그리고 호루시초프는 미코얀 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었으며 1955년 7월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범죄와 비교적 무관한 좀더 젊은 세대이자 자신의 측근들인 키리첸코와 수슬로프를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프,

68) 세르게이 호루시초프, 213쪽.

69) В. П. Наумов(1996б), сс. 151-152.

70) W. Leonhard(1962), pp. 105-106. 이런 사실은 소련 지도자들이 이 즈음 스탈린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1) В. П. Наумов(1996а), с. 14.

벨라에프, 셰필로프 등을 중앙위원회 서기로 임명함으로써 당 지도부 내의 세력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였다.⁷²⁾ 이렇게 나름의 준비가 끝나자 흐루시초프는 1955년 10월에 중앙위원회 간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 문제’를 제기하였던⁷³⁾ 것이다.

물론 흐루시초프의 이런 문제 제기에는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자유와 명예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 또는 의무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⁷⁴⁾ 하지만 이런 도덕적 사명감은 정치적 탄압에 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과 결부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흐루시초프 등은 상황에 밀려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변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그런 사실들을 전당대회 직전에 알았던 것으로, 아니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공개하고 해명한다면 정치적 탄압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은 미코얀의 회고록이 잘 보여준다.

나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고, 나중에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상황은 이렇다. 스탈린이 참여하지 않는, 그의 사망 이후의 첫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스탈린 시대에 탄압받은 사람들에 관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언젠가 당원 전체에게는 아닐지라도 스탈린 사후 첫 전당대회의 대표들에게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다음 전당대회를 기다리지 않

72) T. H. Rigby(1984), p. 62; W. Leonhard(1962), pp. 110-111. 1955년 7월 이후 중앙위원회 간부회와 서기국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간부회 위원:** 불가닌(1895년생/1948년부터 정치국[간부회] 위원), 보로실로프(1881/1926), 카가노비치(1893/1930), 말렌코프(1901/1946), 미코얀(1895/1935), 몰로토프(1890/1926), 페르부힌(М. Г. Первухин, 1904/1952), 사부로프(М. З. Сабуров, 1900/1952), 흐루시초프(1894/1939), 키리첸코(А. И. Кириченко, 1908/1955), 수슬로프(М. А. Суслов, 1902/1952). **간부회 후보위원:** 포노마렌코(1902/1952년부터 간부회 후보위원), 쉬베르니크(1888/1952). **서기국:** 흐루시초프(1949년부터 서기, 1953년 9월부터는 제1서기), 수슬로프(1946년부터 서기), 포스펠로프(1898년생/1953년부터 서기), 아리스토프(А. Б. Аристов, 1903/1952), 벨라에프(Н. И. Беляев, 1903/1955), 셰필로프(Д. Т. Шпилов, 1905/1955). <http://www.ibmh.msk.su/vivovoco/VV/PAPERS/HISTORY/KPSS/KPSS.HTM>.

73) Н. Ковалева и др.(1998), сс. 69-70.

74) Н. С. Хрушев(1997), сс. 288-292; 세르게이 흐루시초프, 337쪽; В. П. Наумов(1997), сс. 28-29.

고 언젠가 이것을 할 것이며, 모두들 당연하게도 과거의 범죄들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했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즉 전당대회 대표들에게 진실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를 용서해줄 것이며, 우리가 이런저런 정도로 져야 할 책임도 용서해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했다고,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고, 그런 더러운 일의 주모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지키지만,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명예는 훼손될 것이다.⁷⁵⁾

호루시초프와 그 측근들은 간부회의 토론에서 몰로토프 등 고참 스탈린주의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논리를 계속 전개하였다. 예컨대 2월 9일의 간부회 회의 초두에서 호루시초프 등은 “용기를 내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전당대회에서 말해야 한다....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당대회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말렌코프는 “스탈린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동지들의 석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스탈린주의의 조용한 청산이 부딪친 딜레마를 표현했으며, 쉬베르니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수용소나 감옥에서 돌아온 정치적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지금 중앙위원회는 침묵할 수 없다. 침묵한다면 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벨라예프는 만약 스탈린의 명성을 옹호하는 데에만 집착한다면, “당의 힘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셰필로프는 정치적 탄압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⁷⁶⁾ 마지막으로 호루시초프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스탈린과 일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지는 못한다.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들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스탈린이 죽은 지 3개월 후에 우리는 베리야를 체포했고, 그것으로 우리는 운신의 폭을 넓혔다.

우리는 큰 목소리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⁷⁷⁾

75) В. П. Наумов(1996б), сс. 150-152. 호루시초프도 회고록에서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Н. С. Хрущев(1997), сс. 292-293.

76) А. А. Фурсенко(2003), сс. 99-102.

하지만 간부회의 논의에서 고참 스탈린주의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완강하였다. 사실 포스펠로프 위원회가 밝힌 사실들은 사부로프가 “만약 그 사실들이 정확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공산주의인가? 이것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⁷⁸⁾ 말할 정도로 젊은 세대의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고참 스탈린주의자들은 밝혀진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와 반감을 표시하였다. 예컨대 몰로토프는 스탈린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와 함께 스탈린을 “위대한 지도자”이자 “레닌의 위대한 계승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탈린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가 승리한 것도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레닌과 맑스에 대한 개인숭배를 거론하면서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것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입장은 보로실로프와 카가노비치도 마찬가지였다. 보로실로프는 “당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물과 함께 어린애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고, 카가노비치는 “역사를 속여서는 안 되지만” “대중의 무절제한 감정(стихия)을 풀어놓지 않도록”, 그리고 “[지난] 30년의 세월을 더럽히지 않도록 냉정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⁷⁹⁾

그런데 고참 스탈린주의자들의 이런 주장들은 정치적 탄압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스탈린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흐루시초프도⁸⁰⁾ 공감할 만한 것이었다. 또한 흐루시초프와 그 동료들은 여러 이유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들 역시 스탈린 비판이 소련의 국가체제와 공산당,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지도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흐루시초프는 2월 1일의 회의에서 스탈린 문제를 ‘진실’보다는 “당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야⁸¹⁾ 한다고 주장했고, 2월 9일의 회의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말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뉘앙스가 달랐다. 고려하겠다”고⁸²⁾ 말함으로써 보수 세력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

77) 같은 책, c. 103.

78) Фурсенко, А. А.(2003), сс. 96-7, 99-100.

79) Фурсенко, А. А.(2003), с. 103.

80) 흐루시초프의 이런 입장은 퇴임 이후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Н. С. Хрущев(1997), с. 287.

81) Фурсенко, А. А.(2003), с. 97.

82) Фурсенко, А. А.(2003), с. 103.

를 밝혔다. 그리고 2월 13일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연설의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의 '비공개회의'에서 호루시초프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연설을 하는 데에 합의하였고,⁸³⁾ 호루시초프는 2월 23일 이전에 자신의 연설문 초고를 동료들에게 보내 검토를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호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데에 대한 보수 세력의 동의를 끌어내면서 그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보수 세력의 견해는 '스탈린 격하연설'의 형식과 내용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4.

우리는 이 논문에서 호루시초프 비밀연설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 즉 호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을 가능하게 또는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그의 도덕적 의무감, 정치적 계산, 그리고 여러 사회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물론 호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소련의 최고 실권자가 스탈린의 정치적 범죄 행위들이 남긴 부정적인 유산들을 청산하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위로부터의” 과거청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과거청산은, 그것이 비록 집권세력의 도덕적 의무감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었을지라도, 체제 변화와 과거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83) 원래 스탈린의 개인숭배 비판은 중앙위원회의 보고연설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 그리고 보고연설의 공개를 피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독립적인 보고연설의 형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보고연설의 시간을 마지막 날로 잡은 것은 그 내용이 주요 당직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간부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고자로서는 호루시초프 이외에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포스펠로프, 복권된 정치범, 예컨대 스네고프 등이 거론되었다. Н. С. Хрушев(1997), сс. 294; А. А. Фурсенко(2003), с. 103; В. П. Наумов(1996б), сс. 161-162. 프이쭈코프는 간부회가 보고연설문의 내용과 방향성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려는 호루시초프의 입장, 스탈린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참 스탈린주의자들의 의도 때문에 호루시초프는 자신의 명의로 보고연설을 했다고 주장한다. А. Пыжиков(2002), с. 48. 하지만 맑스-레닌주의의 이름으로 스탈린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맑스-레닌주의의 권위자로 부각시키려는 호루시초프의 정치적 계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련 지도부의 과거청산 시도가 진공 상태가 아닌 역사적 맥락에서, 즉 과거의 여러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변화로 형성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상황이 형성되는 데에는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범죄 및 정책 실패들 등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조국전쟁의 승리 등 스탈린 시대에 이루어진 여러 업적과 성과들도 또한 기여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스탈린 비판이 스탈린 사후 소련이 이루어낸 많은 성과들을 보고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던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스탈린 체제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전면적인 과거청산이 아니라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그것의 결과들”을 정리하려는 이른바 ‘체제 내의 청산’을 지향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연설에는 스탈린 비판이 체제 비판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논리들이 존재했다. 우선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주의를 계승해야 할 긍정적인 측면과 비판하고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스탈린이 사상투쟁과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1934년 이전과 자신의 개인숭배를 위해 권력을 남용했던 1934년 이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스탈린 체제 아래 희생되었던 수백만의 소련 시민들에 대해 침묵했던 반면에, ‘결백한’ 공산주의자들의 피해를 강조함으로써 공산당이 스탈린 범죄의 공범자 또는 방조자가 아니라 주된 피해자였던 것처럼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인숭배’의 원인을 스탈린의 성격적 결함과 소수 측근들의, 예컨대 베리야 패거리들의 출세욕에서 찾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레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⁴⁾ 이렇듯 흐루시초프와 당시 소련 지도부는 스탈린의 정치적 범죄를 비판하면서도 스탈린에 의해 형성된 당시 소련 체제와 공산당을 정당화하려고, 그와 동시에 스탈린 시대에 출세한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스탈린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또는 범죄들은 스탈린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업적과 성취들과 손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체제 내의 청산’이 지녔던 한계와 함께, ‘과거를 청산하기’가, 소련의 경우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

84)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A. H. Яковлев(1991), ss. 19-67에 실려 있다.

여준다. 그런 상황은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소련 시민들은 소련 사회주의 건설과 '대조국전쟁' 시절의 지도자(Вождь)였던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의 오랜 신념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과거, 즉 사회주의 건설과 대조국전쟁에서 자신들이 감수했던 희생과 인내, 영웅적인 투쟁 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스탈린의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예컨대 어떤 시민은 스탈린 비판과 관련된 이 시기의 사건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심지어 2차 대전초의 군사적 패배보다도 힘들었다고 회고했으며, 다른 시민은 스탈린의 "엄청난" 범죄행위를 알고난 후에도 스탈린에 대한, "온몸에 그렇게 강하게 뿌리내려 있던 거대한 사랑을 가슴에서 지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⁸⁵⁾ 이런 상황이 결국 비밀연설을 했던 호루시초프의 개인적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말에 스탈린을 다시 '복권'시키려는 움직임을 낳았던 것이다.

하지만 호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소련의 최고 권력자가 스탈린의 정치적 탄압을, 그것도 그 규모가 놀랄 정도였음을 인정하고 폭로했다는 점에서 스탈린주의 청산의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일시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더욱 근본적인 스탈린주의 청산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85) С. В. Кулешов и др.(1991), сс. 453-454.

참고문헌

- 노브, A.(1998) 『소련경제사』, 김남섭 옮김, 창작과비평사.
- 오버리, R.(2003)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류한수 옮김, 지식의풍경.
- 흐루시초프, S.(1991) 『크레믈린의 음모』, 임인재, 원종화 옮김, 시공사, 1991.
- Аймермахер, К.(2002)(ред.) Доклад Н. С. Хрущева о культе личности Сталина на XX съезде КПСС,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 Аксютин, Ю. В.(1998) “Новое о XX съезде,”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No.2, сс. 108-123.
- Аксютин, Ю. В., О. В. Волобуев(1991) *XX съезд КПСС: новации и догмы*, Москва.
- Артизов, А. и др.(2000)(сост.) *Реабилитация: как это было, март 1953-февраль 1956*, Москва.
- Барсуков, Н. А.(1996) “XX съезд в ретроспективе Хрущева,”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No.6, сс. 169-177.
- Ковалева, Н. и др.(1998)(сост.) *Молотов, Маленков, Каганович. 1957. Стенограмма июньского пленума ЦК КПСС 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 Кулешов, С. В. и др.(1991) *Наше отечество: опыт 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Москва.
- Наумов, В. П.(1996а) “Борьба Н. С. Хрущева за единоличную власть”,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No.2, сс. 10-31.
- _____ (1996б) “К истории секретного доклада Н. С. Хрущева на XX съезде КПСС,”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no.4, сс. 147-168.
- _____ (1997) “Н. С. Хрущев и реабилитация жертв масс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o.4, сс. 19-35.
- _____ (1998) “Был ли заговор Берии? Новые документы о событиях 1953 г.,”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no.5, сс. 17-39.
- Наумов, В. Ю. Сигачев(1999)(сост.) *Лаврентий Берия, 1953: Стенограмма июльского пленума ЦК КПСС 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 Пихоя Р. Г.(1995) “О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ой борьбе в советском руководстве, 1945-1958 гг.,”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no.6, сс. 3-14.
- Пыжиков, Александр(2002) *Хрущевская оттепель, 1953-1964*, Москва.

- Фурсенко, А. А.(2003) *Президиум ЦК КПСС, 1954-1964: т.1, Черновые протокольные записи. стенограммы*, Москва.
- Хрущев, Никита С.(1997) *Воспоминания: избранные фрагменты*, Москва.
- _____ (1999) *Воспоминания: время, Люди, Власть*, Москва.
- Яковлев, А. Н.(1991)(ред.) *Реабилитация, 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30-50-х годов*, Москва.
- Antonov-Ovseyenko, Anton(1980) *The Time of Stalin: Portrait of a Tyranny*, New York.
- Applebaum, Anne(2003) *Gulag: A History*, New York.
- Cohen, Stephen F.(1985) *Rethinking the Soviet Experience: Politics and History since 1917*, New York.
- Conquest, Robert(1990) *The great Terror: a Reassessment*, New York.
- Gill, G.(1990) *Stalinism*, Macmillan.
- Gruliov, Leo(1953)(ed.) *Current Soviet Policies*, New York.
- _____ (1957)(ed.) *Current Soviet Policies II*, New York.
- Hixson, Walter L.(1997) *Parting the Curtain: Propaganda, Culture, and the Cold War, 1945-1961*, New York.
- Hosking, Geoffrey(1993) *The First Socialist Society: A History of the Soviet Union from Within*, (2-ed.), Cambridge.
- Leonhard, Wolfgang(1962) *The Kremlin since Stalin*, New York.
- Medvedevs, Roy A. & Zhores A.(1978) *Khrushchev: the Years in Power*, New York.
- Naumov, Vladimir(2000) "Repression and Rehabilitation," W. Taubman, S. Khrushchev, A. Gleason (ed.), *Nikita Khrushchev*, New Haven, pp. 85-112.
- Nove, Alec(1993) "Victims of Stalinism: How many?", *Stalinist Terror, New perspectives*, Cambridge, pp. 161-174.
- Rigby, T. H.(1984) "Khrushchev and the Rule of the Soviet Political Game," R. F. Miller, F. Féhér (ed.), *Khrushchev and the Communist World*, London, pp. 39-81.
- Smith, Kathleen E.(1996) *Remembering Stalin's Victims: Popular Memory and the End of the USSR*, Ithaca.
- Suny, R. G.(1997) "Stalin and Stalinism: power and authority in the Soviet

- Union, 1930-53", Ian Kershaw and Moshe Lewin (ed.), *Stalinism and Nazism: Dictatorships in Comparison*, Cambridge, pp. 26-52.
- Tucker, Robert C.(1971) *The Soviet Political Mind: Stalinism and Post-Stalin Change*, New York.
- Tumarkin, Nina(1994) *The Living and the Dead: the Rise and Fall of the Cult of World War II in Russia*, New York.
- Yakovlev, Alexander N.(2002) *A Century of Violence in Soviet Russia*, New Haven.

Abstract**Motives and Context of 'Secret Speech' by Khrushchev****Park, Sang-Chul**

Khrushchev's 'Secret Speech' attempted to overcome Stalin's negative vestiges "from the above". But it represented not only Khrushchev's personal resolution but also the specific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necessity to transform the past Stalinist system spread out throughout the Soviet society. The strong demand for the societal transformation came from the positive aspect of the Stalinist past such as the victory in the Second World War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its negative side including rampant political terror and unlawful dictatorship.

At first, Khrushchev undertook a policy of "silent de-Stalinization" as the Soviet society requested. However, the policy did not last long because of the resistance from conservative Stalinists and contradictory symbol politics. Under these circumstances, Khrushchev's 'Secret Speech' was born with his moral motives and political consideration.

Khrushchev's 'Secret Speech,' in effect, did not aim at wiping out the Stalinist system as a whole, but tried to reform its negative aspects within the system, especially "the Cult of Personality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Therefore, Khrushchev's disclosure had many limits in overcoming the Stalinist past and indicates the difficulties Khrushchev and his fellows suffered in severing themselves from the Stalinist bondage. In spite of all restraints, Khrushchev's 'Secret Speech' constituted a crucial moment in the history of overcoming the Stalinist past and paved the way for a more radical negation of Stalinism in the late 1980s.

논문심사일정

| | |
|--------|-------------------------|
| 논문투고일: | 2004. 1. 15 |
| 논문심사일: | 2004. 3. 18~2004. 4. 16 |
| 심사완료일: | 2004. 4. 19 |